

## 친환경농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사례분석과 그 시사점\*

김 호\*\*

### A Case Study on Management Situations of Environment-friendly Farming and Its Implications

Kim, Ho

This case study surveyed management situation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EFF) and their awareness situations. Farmers are aging as an average age of 62-year old. The EFF did not increase farmer's income, however, farm income of EFF was more than that of conventional farming. Farm household liabilities showed large deviation among farmers. Livestock and greenhouse farm households have more liabilities because of facilities and feed cost. Farmers of EFF have been also cultivating conventional farming, but they don't plan much conversion intention of conventional farming into EFF owing to lack of differentiated and stable market for thei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And they are guessing that EFF income will usually not increase more. For increasing of EFF income, they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enlarge production area, change to high-income crop, develop processing foods, change to organic farming and so on.

Key words :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EFF), farmer's income, Farm household liabilities, conventional farming*

## I . 서 론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농가는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왔다.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할 경우에 농가소득이 관행농업 농가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생협 등 차별화되고 안정

---

\* 이 연구는 2012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E-mail : hokim@dankook.ac.kr)

된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친환경농가의 소득은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경험이 많고 안정적인 판로를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의식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323명을 조사하여 유효표본 316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경영실태에 대해서는 경지면적, 가축사육 두수,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농가부채, 영농장비 보유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의식실태로는 친환경농가가 병행하고 있는 관행농업 농지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의사 여부, 현재의 소득 및 가격수준에 대한 인식, 소득증대 방안, 영농후계자의 존재 유무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 II. 사례지역 친환경농가의 경영실태 분석

### 1.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조사대상 지역 친환경농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 60대, 70대가 87.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Table 1).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62.0세이며, 최연소 생산자는 27세이고 최고령 생산자는 84세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00명(31.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대로서 95명(30.1%)이며 70대 81명(25.6%)의 순이었다.

Table 1. Distribution by age group

(unit : person, %)

Age group	Frequency	Ratio
Under 40 years old	8	2.5
40~49	26	8.2
50~59	100	31.6
60~69	95	30.1
70~79	81	25.6
80 years old and over	6	1.9
Total	316	100.0

### 2. 영농현황

조사대상 친환경농가의 평균 재배면적은 22,895㎡(2.29ha)이었는데, 많은 친환경농가가 관행농업을 병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은 64.4%인 14,743㎡(1.47ha)이었고 관행농

업은 35.6%인 8,152m<sup>2</sup>(0.82ha)이었다. 이들이 관행농업을 병행하고 있는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환경농업 중 논과 시설원예의 재배면적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논인 경우 전체 16,005m<sup>2</sup> 중 친환경농업 면적비율이 75.0%(12,010m<sup>2</sup>)이었고 시설원예는 전체 977m<sup>2</sup> 중 친환경농업이 97.6%인 954m<sup>2</sup>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비교적 어려운 과수는 친환경농업 면적 비율이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2. Cultivated area by farming type

(unit : m<sup>2</sup>, %)

Farmland	Conventional		Environment-friendly		Total	
Paddy field	3,995	(25.0)	12,010	(75.0)	16,005	(100.0)
Upland	3,034	(64.0)	1,704	(36.0)	4,738	(100.0)
Greenhouse crop	23	( 2.4)	954	(97.6)	977	(100.0)
Orchard	1,100	(94.3)	66	( 5.7)	1,166	(100.0)
Total	8,152	(35.6)	14,743	(64.4)	22,895	(100.0)

한편 친환경농가 중 축산도 함께하고 있는 농가의 사육방식별 분포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응답자 중 관행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는 총 53호이고 무항생제 축산농가는 7호, 유기축산 농가는 6호이었다. 친환경축산의 축종별 농가의 수는 한우 7호, 젓소 2호, 돼지 1호, 닭 3호이었다.

Table 3. Farm household by breeding type

(unit : farm household, %)

Breeding type	Korean beef cattle		Dairy cattle		Pigs		Chickens	
	Freq.	Ratio	Freq.	Ratio	Freq.	Ratio	Freq.	Ratio
Conventional	35	83.3	11	84.6	1	50.0	6	66.7
Non-antibiotics	3	7.1	2	15.4	-	-	2	22.2
Organic	4	9.5	-	-	1	50.0	1	11.1
Total	42	100.0	13	100.0	2	100.0	9	100.0

<Table 4>는 축산을 겸하고 있는 친환경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수를 사육방식별로 구분한 것이다. 친환경농가는 무항생제 및 유기 등 친환경축산보다는 관행축산을 하고 있는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우 총 사육두수 1,631두에서 친환경 사육두수는 312두(무항생제 127두, 유기 185두)로서 19.1%이었고, 젓소는 총 1,022두 중 친환경 사육두수는 240두

(23.5%)이었다. 그리고 돼지는 총 사육두수 2,500두에서 친환경사육은 1.2%에 불과하였으며, 닭은 39.5%가 친환경방식으로 사육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농가가 가축을 관행방식으로 사육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첫째, 친환경 축산물의 시장규모와 판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기사료 등 친환경사료 구입비용이 과다하여 생산비가 많이 들고 소비자가격이 비싸 수요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다. 셋째, 친환경축산을 위한 기술의 습득이 어렵다. 넷째, 친환경축산 인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축 두당 사육면적 및 초지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 때문으로 보인다.

Table 4. Livestock heads by breeding type

(unit : head, %)

Breeding type	Korean beef cattle		Dairy cattle		Pigs		Chickens	
	Head	Ratio	Head	Ratio	Head	Ratio	Head	Ratio
Conventional	1,319	80.9	782	76.5	2,500	98.8	29,085	60.5
Non-antibiotics	127	7.8	240	23.5	-	-	11,000	22.9
Organic	185	11.3	-	-	30	1.2	8,000	16.6
Total	1,631	100.0	1,022	100.0	2,530	100.0	48,085	100.0

### 3. 농가소득 및 부채

조사대상 친환경농가의 소득을 보면 경종농가의 경우, 연 평균 3,053만 원이며, 이 중 농업소득이 2,529만 원이고 농외소득은 461만 원이었다. 그리고 농업소득 2,592만 원 중 친환경농업 소득은 1,788만 원, 관행농업 소득 804만 원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이것은 2011년 관행농가의 연 평균 농가소득 약 3,015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친환경농업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친환경 경종농가의 친환경농업 소득 1,788만 원 중 수도작이 1,233만 원으로 68.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채소는 357만 원(20.0%), 노지채소 169만 원(9.5%), 과수 29만 원(1.6%)이었다(Table 6).

Table 5. Income of crop farm household

(unit : 10 thousands won)

Item	Farm income			Non-farm income	Total
	Conventional	Environment-friendly	Total		
Income	804	1,788	2,592	461	3,053
Ratio	(26.3)	(58.6)	(84.9)	(15.1)	(100.0)

Table 6. Environment-friendly farm income of crop farm household

(unit : 10 thousands won)

Item	Rice	Field	Greenhouse	Orchard	Total
Income	1,233	169	357	29	1,788
Ratio	(68.9)	(9.5)	(20.0)	(1.6)	(100.0)

한편, 축산농가의 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농가는 경종과 축산을 병행하고 있으며 경종부문은 친환경방식으로 하고 축산부문은 관행방식으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가 많다.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축산부문의 소득이 농가소득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축산 농가와 관행축산 농가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관행축산 농가는 1억 5,923만 원(경종 1,727만 원, 축산 14,196만 원)이고 친환경축산 농가의 경우는 9,017만 원(경종 1,684만 원, 축산 7,333만 원)이었다. 두 농가그룹별 농가소득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친환경축산의 경우가 관행축산보다 사육규모가 더 작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 7. Income of livestock farm household

(unit : 10 thousands won)

Item	Environment-friendly livestock farm household				Conventional livestock farm household			
	Farms	Crop Sector	Livestock Sector	Total	Farms	Crop Sector	Livestock Sector	Total
Income	3	1,684	7,333	9,017	24	1,727	14,196	15,923
Ratio		(18.7)	(81.3)	(100.0)		(10.8)	(89.2)	(100.0)

조사대상 친환경농가의 평균부채는 4,940만 원이었다. 농협 및 은행대출이 3,924만 원(79.4%)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 융자 947만 원(19.2%), 사채 68만 원(1.4%)이었다(Table 8). 이러한 부채규모를 앞의 평균 농가소득 3,053만 원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약 1,900만 원 영농적자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Table 9>의 부채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부채가 없는 농가에서부터 2억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진 농가 등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채규모가 큰 농가의 부채가 평균부채의 크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즉 부채가 없는 응답자는 37.3%(118호)를 차지하고 있고, 2,000만 원 미만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19.3%(61호)이었다. 조사대상 친환경농가의 절반이상이 2천만 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소규모 부채가 있다. 반면에 부채가 2억 원 정도인 응답자는 20호로서 6.3%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8. Farm household liabilities

(unit : 10thousands won, %)

Item	NACF, Bank	Government	Individual	Other	Total
Liabilities	3,924	947	68	2	4,940
Ratio	(79.4)	(19.2)	(1.4)	(0.0)	(100.0)

Table 9. Distribution of farm household liabilities

(unit : person, %)

Size of liabilities	Frequency	Ratio
No debt	118	37.3
Under 20 million won	61	19.3
20~60 million won	63	19.9
60~100 million won	25	7.9
100~140 million won	19	6.0
140~180 million won	10	3.2
180 million won and over	20	6.3
Total	316	100.0

#### 4. 영농장비 보유 실태

조사대상 친환경농가 316호의 경운기와 트랙터 보유대수는 각각 310대(98.1%)와 230대(72.8%)로서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경운기의 경우, 8마력(197호)과 10마력(100호)이 대부분이고 트랙터는 대개 30~60마력(158호)이었다. 그리고 이앙기는 조사대상 농가의 46.2%, 관리기 48.4%, 농산물 건조기 30.4%가 보유하고 있다(Table 10).

Table 10. Agricultural machinery holdings

(unit : set, %)

Item	Power tiller	Farm tractor	Rice Transplanter	Combine	Cultivator	Dryer (grains)	Dryer (farm produce)	Speed sprayer
Freq.	310	230	146	64	153	84	96	37
Ratio	98.1	72.8	46.2	20.3	48.4	16.6	30.4	11.7

\* notes : N=316(100.0)

이앙기는 4조식과 6조식이 각각 69대와 64대로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콤바인의 경우 총 64대 중 4조식이 38대(59.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5조식이 12대이며 3조식이 10대이었다. 관리기는 보행이 141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건조기는 곡물건조기와 고추건조기를 각각 84대와 96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Ⅲ. 사례지역 친환경농가의 의식실태 분석

#### 1. 관행농업 병행 농경지의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의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 친환경농가 316명 중 관행농업을 병행하고 있는 농가는 242명으로서 응답자의 7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농업 재배농지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관행농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응답자가 116명으로서 절반가량인 47.8%이었고, 전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48명(19.8%)이었다. 그리고 전환하겠다는 응답자는 56명으로 23.1%로 나타났다(Table 11).

이처럼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데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된 판로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차별화된 판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시장에 관행농산물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 겉모양이 관행농산물보다 좋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상 관행농산물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관행농업을 하는 편이 생산비 및 농가수취가격에 있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Table 11. Conversion intention of conventional farming into environment-friendly farming  
(unit : person, %)

Item	Sooner or later	After a few years	Status quo	Conversion little	Conversion never	Non-response	Total
Freq.	24	32	116	8	40	22	242
Ratio	(9.9)	(13.2)	(47.8)	(3.3)	(16.5)	(9.1)	(100.0)

#### 2. 소득수준 및 가격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친환경농가는 생산자조직 단위로 생산 및 유통을 추진해왔다. 이들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 후 소득변화에 대한 인식, 현재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 향후 소득전망 등을 나타낸 것이 <Table 12>이다. 소득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61.1%이었고 소득에 변화가 없다는 비율은 32.3%이었으며,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하였다. 소득이 증가했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생산자조직 단위로 공동출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2. Awareness, satisfaction and prospect on income level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Income change	Increased so much	22	7.0
	Increased a little	171	54.1
	Non-change	102	32.3
	Decreased a little	12	3.8
	Non-response	9	2.8
	Total	316	100.0
Satisfaction degree on current income level	Satisfy so much	20	6.3
	Satisfy a little	117	37.0
	Not so satisfied	112	35.4
	Dissatisfy a little	52	16.5
	Dissatisfy so much	10	3.2
	Non-response	5	1.6
Total	316	100.0	
Prospect on income change	Increase so much	7	2.2
	Increase a little	119	37.7
	Non-change	154	48.7
	Decrease a little	31	9.8
	Decrease so much	1	0.3
	Non-response	4	1.3
Total	316	100.0	

그리고 현재 친환경농업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비율이 43.3%, 불만족 비율 19.7%이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35.4%이었다. 또한 생산자조직 단위의 친환경농업을 통해 향후 소득에 대한 전망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9.9%인 반면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48.9%로 나타났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10.1%이었다. 현재 생산자조직 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는 소득전망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았다. 이는 차별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친환경농업을 실시한 이후에 소득이 증가했다(61.1%)는 비율에 비해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39.9%) 비율이 더 낮으며 소득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비율(48.9%)이 절반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개발이나 농촌관광 등 2차 및 3차 산업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수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 <Table 13>이다. 조사대상 친환경농가의 55.7%가 인상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현재의 가격수준도 괜찮다는 비율은 42.1%이었으며, 인하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하였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현재 가격보다 더 인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가격수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조사대상 친환경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Table 13. Awareness on current price level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Need to be increased so much	21	6.6
Need to be increased a little	155	49.1
Satisfy on current price level	133	42.1
Need to be decreased a little	2	0.6
Non-response	5	1.6
Total	316	100.0

Table 14. Measures for increasing income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Enlarging production area	174	55.1
Changing to high-income crop	97	30.7
Developing processing foods	66	20.9
Increasing contract cultivation	42	13.3
Changing to organic farming	28	8.9
Price increasing	17	5.4
Expanding market	13	4.1
Reducing production cost	10	3.2
Increasing rate of utilized land	4	1.3
Others	11	3.5
Total	462	N=316(100.0)

<Table 14>는 조사대상 친환경농가가 생각하는 친환경농업의 소득증대 방안에 관한 것

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의 증가가 55.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 30.7%, 가공식품 개발 20.9%, 계약생산 물량의 증가 13.3%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서 관행농업을 유기재배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율이 8.9%,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상승 5.4%, 판로 확대 4.1%,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생산 3.2%, 친환경농업단지 형성 및 이모작 등 경지이용 증가 1.3% 등이었다.

조사대상 친환경농가 중 영농후계자는 없다는 응답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Table 15). 조사대상 농가 316호 중 후계자가 있다는 응답은 22.2%(70호)이었고 후계자가 없는 비율은 76.9%(243호)로 나타났다. 영농후계자가 없는 농가의 농지는 친환경농업, 더욱이 농업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즉 농지를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농지판매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일부 농가는 귀농자나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거나, 또 뚜렷한 계획이 없는 농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 Successor of Environment-friendly farming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Have	70	22.2
Not have	243	76.9
Non-response	3	0.9
Total	316	100.0

#### IV. 시사점

조사대상 친환경농가 316호의 경영 및 의식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지역은 친환경농업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생산자조직을 통해 생산 및 유통을 추진해 온 곳이다. 사례조사 분석 결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업 뿐 아니라 일반적인 농업여건으로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조사대상 친환경농가의 평균연령은 62세이고 70대 이상이 27.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서 후계농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과 지원, 귀농·귀촌뿐 아니라 귀향대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현재 친환경농가가 은퇴 후 농지를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귀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귀향은 정착을 위한 비용과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 기간 등 측면에서 귀농·귀촌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과 건강 및 노후대책 등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친환경농

업은 노동력이 많이 들고 생산기술의 고도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친환경농가가 중심이 된 농작업 대행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친환경농가가 병행하고 있는 관행농업의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에 신규 진입은 기술습득과 유통대책 등 사전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조건이 많다. 우선 친환경농가가 병행하고 있는 관행농업 농지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친환경농업 지역(단지)이 형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가의 소득 및 가격안정을 위한 차별화되고 안정적인 판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락동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된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제도 및 방식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협동조합 등 직거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비영리 소비자조직에 대한 유통 관련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생협매장 개설에 대한 지원, 생협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인식의 확산 등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가공식품의 개발이나 도농교류활동 등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한 2차 및 3차 산업과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위해서는 친환경 원료농산물의 지속적인 공급, 가공 관련 제도의 개선, 친환경 가공식품에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설정, 친환경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이 중요하다. 특히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우선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기업급식 등 단체급식 판로를 개척하여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업지역과 도농교류활동은 도시지역의 소비자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시키는 기구 즉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등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있다. 도시의 기초지자체와 농촌지역 기초지자체 간 협력관계(MOU 등)를 체결하여 도시지역의 소비자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에 도농교류의 다양한 활동을 권유하는 것이다.

넷째, 친환경축산의 생산비 절감방안, 친환경축산물의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와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현재 친환경축산물은 생협이나 직영식당 등 극히 협소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무항생제 및 유기축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친환경 사료의 확보와 사료비용, 판로의 한계,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이다. 친환경 자원순환체계의 확산을 통해 친환경 사료의 확보와 가축연령에 따른 적정 사료급이량의 제시, 친환경 사육기술의 보급 등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친환경축산물은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등급제 판정의 예외로 두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 인증종류 및 내용에 대한 홍보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자원순환형 축산방식의 환경보전 효과와 소비자 건강, 동물복지, 마블링의 본질 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중장기 계획은 생산부문, 유통부문, 생산자조직 부문, 교육 및 복지부문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Table 16>에 나타나 있는 조사대상 친환경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또는 조

직단위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6. Difficulties of farmers in Environment-friendly farming

(unit : person, %)

Item	Frequency	Ratio
Scarcity and aging of labor	98	43.0
Price increasing	22	9.6
Farming techniques	16	7.0
Pest management	15	6.6
Insufficiency of organic farming philosophy	15	6.6
Unstability of production	14	6.1
Difficulty of water quality management	12	5.3
Delay of accounts settlement	11	4.8
Improvement of technical education quality	10	4.4
Decreasing of production support	8	3.5
Increasing of production cost	6	2.6
Frequent meeting	6	2.6
Misunderstanding of neighbor farmer	6	2.6
Increasing of contract quantity	5	2.2
Insufficiency of agri-machinery operating technical skills	5	2.2
others	12	5.3
Total	261	N=228(100.0)

생산부문의 과제로서는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대책, 생산기반 유지방안,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병해충 관리, 농기계 조작기술, 친환경농자재 등), 중장기적인 수질관리대책, 지역의 토양여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 선택, 친환경농자재의 자급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생산비 절감방안 등이 있다. 유통 및 소비촉진 부문으로는 친환경 가공사업의 확대,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등이다. 생산자조직 부문으로서 조직의 유지관리 방안, 생산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성, 공동체 의식 강화와 마을 공동체 형성, 조직의 사회적 인지도 제고, 조직단위의 사회적 기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끝으로 교육 및 복지부문으로는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생산자들 복지향상 방안(정기적인 건강검진, 노후대책 등) 등이 있다.

## V. 요약 및 결론

친환경농가가 차별화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가격 및 소득안정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사례지역의 조사대상 친환경농가에 대한 경영 및 의식실태 분석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농업소득은 관행농가보다 더 많은 1,788만원이었다. 그리고 경종농가의 평균소득보다는 축산농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농외소득은 관행농가보다 적었다. 농가부채의 경우, 농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주로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의 부채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축입식 및 사료비용, 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친환경농가는 관행농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관행농업 농지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의사가 많지 않았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되고 안정화된 판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판로 및 소비확대 등 유통과 소비측면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또 친환경농가는 앞으로 소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낮는데, 소득의 증가를 위해서 생산면적의 확대와 고소득 작목의 선택, 가공식품의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과거와 달리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 산업적 측면만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입가공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이 중요하다.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에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료농산물의 지속적인 공급기반 확보, 원료농산물 생산비용의 절감, 가공용 친환경농산물의 전문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단체)의 가공 활성화 위한 제도적 규제 완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홍보 등이 필요하다. 또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농사체험 등 소비자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농촌의 지자체 간 협력관계 체결 및 알선 등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농촌의 생산자조직 또는 마을과 도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간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논문접수일 : 2013. 9. 1. 논문수정일 : 2013. 9. 13. 최종논문접수일 : 2013. 9. 23.]

## Reference

1. Kim, H. and S. T. Kim. 2012. Establishing a Crop System of Organic Farming for Maximizing Agricultural Income. Korean J. Organic Agric. 20(2): 143-159.

2. MAFRA. 2012.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tatistical Yearbook.
3. Purudle Farming Cooperative. 2012. Mid-to Long Term Development Plans on Environment-friendly Region Circulation Agriculture of Hansalim at Asan City.
4. Heo, S. W. 2012. Development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Based on Farm Awareness Analysis. Korean J. Organic Agric. 20(4): 563-576.